

제5차 ASTAP Forum



김영문

TTA 정보보호기술위원회 정보보호관리연구반 특별위원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사무관

제5차 ASTAP Forum이 호주 시드니 Merchant 호텔에서 2001. 10. 31~11. 2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번으로 제5차를 맞는 ASTAP (APT STAndardization Program) 포럼은 아·태지역의 표준화활동 및 ITU,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 회원국의 공동 입장반영을 위해 '98. 2월 설립되어 현재 정보보호, IMT-2000 등 10여 개 Expert Group이 운영중이다.

APT(아·태전기통신협의체)의 표준화기구인 ASTAP 총회와 12개의 분야별 Expert Group 활동과 ITU 개혁에 관한 의견토의 등이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종순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의장 및 Rapporteur에 산업분야 ASTAP 부의장(김영균), 자문위원회(박기식), 전문가그룹 라포처(위규진, 성종진, 정유현, 이재진, 손승원) Reform CG(이홍림, 박기식) 등 총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대표 및 표준화단체, 기업 등 133명 중 한국에서는 정통부 산업기술과장외 ETRI, KT, KISA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ASTAP Expert 그룹 및 의장단(Rapporteur) 현황

구분	그룹명	성명	국가
의장		Dr. Bob Horton	호주
부의장		Mr. Kaoru Suzuki	일본
		김영균	한국(삼성)
라포처	Network Service Management for IP World	Mr. Parthasarathy Ganesh	인도
		Dr. Cherng Yeh	일본

구분	그룹명	성명	국가	
라포치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Mr. Satoshi Oyama	일본	
	Wireless Local Loop	Mr. Yoshihiko Shindo	일본	
	IMT-2000	교체예정		일본
		위규진(교체예정)		한국
	Interoperability/Asia-Pacific All Backbone	성종진		한국(ETRI)
		이준원		한국(안동대)
	ATM/xDSL	이재진		한국(KT)
		Internet-related topics	Dr. Hui-Lan Lu	일본
	정유현			한국(ETRI)
	Dr. Shin-ichi Nakagawa			일본
	Information Security	Dr. Sung-Won Sohn		한국
Mr. Hiroshi Takechi			일본	
Digital Broadcasting		Mr. Toshiro Yoshimura		일본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HAPS)	Dr. Katsuhikao Kosaka	일본	

1. 주요 회의결과 및 활동실적

■ 한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의 표준화기구 및 정책발표

회의 첫날인 10월 31일 오전 세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유럽의 지역 표준화기구 ETSI의 사무총장인 Kjell Strandberg가 “ETSI-evolving to remain at the forefront”에 대한 주제로 ETSI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미국의 T1 의장인 Ray Hapeman와 프랑스의 Knut Smaaland에 의해 각각 Committee T1과 CEPT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ETSI의 경우 현재 ASTAP간의 MOU 체결이 진행 중으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면, MOU 체결에 대한 회원국(일본, 베트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적재산권, 참여자격 조건 등 세부 조건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는 ASTAP과 유럽과의 협력관계 도모를 위한 첫 시도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시도는 미국과 유럽의 경쟁구도인 ITU에서의 유럽(ETSI)이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아시아의 협력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정통부 김기권

과장은 “한국의 정보통신 표준화 정책방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국제 표준전문가 선정·지원,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 주요 분야의 민간포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협회인 TTA를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기구로 육성하며 IT 시험연구소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는 2002년에 200명이상의 국제 표준전문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인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표준화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밖에 IMT-2000 & Beyond(삼성전자 김영균전무), PKI 기술동향(일본 히다찌 사토르박사)에 대한 최신동향 발표가 있었다.

■ Expert Group Rapporteurs Reports

삼성전자의 김영균 전무는 이미 고인이 된 일본의 Akio Sasaki를 대신해 IMT-2000 & Beyond에 대한 최근의 ITU-R WP8F and SSG의 결과에 대해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일본의 Sam Oyama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ITS)에 대해서 한국에서 올 7월에 열렸던 ASTAP ITS-EG meeting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ITU-R Recommendation DSRC at 5.8GHz의 개정본이 WP8A에 의해 승인을 받고 Study Group 8의 최종 승인을 남기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TRI의 성종진 선임은 Interoperability/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Backbone(IA) 분과의 현황보고에서 the Interoperability Testing Methodology와 Framework standardization 활동은 아직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KT의 이재진 팀장은 그간의 ATM/xDSL EG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에 한국주도로 신설된 Information Security 분과의 의장인 ETRI의 손승원 부장은 Information Security 분과에서는 이미 ITU-T에 관련 기고서를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 ITU-T Reform 관련

본 회의이전인 2001. 10. 29일부터 진행된 「ITU-T Reform 관련 소그룹회의」에 한국대표로 제네바의 김용수 서기관외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개최예정인 ITU 전권위원회에 대비한 ITU-T Reform에 대하여 APT 공동 입장 정리 등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 2002. 9월 개최예정인 ITU 전권위원회에 ITU-T Reform 관련 APT 공동기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ASTAP 산하의 ITU-T Reform 임시그룹의 논의결과를 검토하였으며, ITU-T Reform 방안으로 유럽에서 제시된 Pilot Standardization Forum과 일본의 Project-oriented Working methods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유럽에서는 당초에 Standardization Pilot Forum 설립을 제안하였으나, 최근 현재의 ITU-T Working Method를 개선하자는 일본의 입장과 실질적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두 지역

간의 의견조율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ITU-T의 표준화작업을 효율화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다. 기타 Technical specification의 성격과 승인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일본은 상기 제안을 금년 11월말에 개최되는 ITU TSAG회의에 제안키로 하고 동시에 1차 ITU-T Reform 7개 임시그룹 작업을 APT PP-02 CG(Corresponse Group)3에서 총괄토록 하였다.

또한 APT 국가들의 공동제안이 ITU 현장/협약의 개정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권위원회 개최전(2002년 1월 23일까지)에 제안되어야 하므로, 금년내로 APT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해 ITU에 기고서를 제출키로 하였다.(WTSA와 TSGA의 역할, project-oriented working methods의 도입과 관련해 현장/협약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

이를 위해 우선 ITU Constitution/Convention (CS/CV) 관련 공동 대응방안은 11월말까지 초안을 정리하여 12월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 ASTAP Expert Group별 활동

앞서 일부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IMT-2000, ATM/xDSL, 정보보호분과 등에 ETRI, KT, KISA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련 표준기고, 최신이슈에 대해서 제안하고 향후 계획을 활발히 논의하였다. 이 중 편의상 필자가 참석한 정보보호분과의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은,

지난 4월 방콕회의에서 한국에 의해 새로 신설된 정보보호분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총 9개의 표준을 제안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번에 한국에서 제안된 IDS, VPN 등 총 9

개의 표준안 중 일부는 일본 등 다른 참여국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2년에 ITU-T에 공동기 고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일본이 제안한 무선 PKI 상호연동 기준은 현재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구성된 「아시아 PKI 포럼」에 사전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2. 참가 소감

■ ASTAP 역할의 한계 및 재정립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1년 4월 한국주도로 정보보호 분과를 신설하는 등 현재 5개 분과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삼성, KT 등 국내 업체에서도 ASTAP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적 후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한국, 일본, 호주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회원국가 대다수의 기술격차가 심하고 참여자의 지속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ASTAP 전체의 성과는 현재까지는 다소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애초 ASTAP의 역할을 ITU-T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제한하고 아직 독자적인 아태지역 지역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점은, ASTAP이 보다 많은 회원국의 관심 특히,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ASTAP에 대한 각국의 입장 및 이해 관계

일본은 10개 분과중 6개 분과의 의장을 맡고 있고 ASTAP에 정부(MPHPT(우리나라의 정통부, 행자부를 합친 형태) 표준과장을 중심으로)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는 ASTAP을 자국의 기술을 ITU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해외시장에 대한 마케팅 전략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ASTAP 의장국인 호주는 영어권이라는

장점 외에는 아직 국가적으로 IT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ASTAP을 선도할 만한 자체 역량은 부족해 보이며 반면에, 사무총장 국가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요 재정 후원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ASTAP에 대한 지금까지의 투자에 비하여 아직 당장은 가시적인 과실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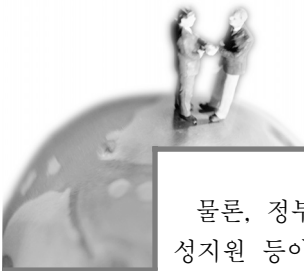
따라서 그동안의 ASTAP 활동에 대한 꼼꼼한 손익계산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국제기구 활동이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ASTAP이 국내 산업체의 동남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STAP 대응에 관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TU-T Reform 관련 현안의 경우도 현재 ITU-T Reform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Project-oriented Working methods 방식의 개혁 등 ITU-T Reform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향후 조치 계획

이상과 같은 회의참석 결과와 여러 관계자의 조언을 통하여 필자는 우리 정부입장에서 향후, 동 ASTAP 활동을 포함하여 국내의 국제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물론 필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소위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표준화활동의 지속성 즉,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업체에서도 표준화활동에 대한 경영자의 마인드가 부족하고 그나마 많지 않은 업계 전문가의 경우도 전직과 동시에 국제표준화활동은 중지되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그만 사장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제표준전문가 양성지원 등이 어느정도 부양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우리나라 민간업체에서도 표준화 활동을 하나의 마케팅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표준 전문가의 단발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 단기적인 표준화정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있게 국제 표준화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제 표준화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2 ~ 3년 형태의 프로젝트식 표준 연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선도 표준기술을 장기적으로 연구토록 지원하고, 모든 기술개발과제 결과물에 “국제표준에의 기여도”를 평가적으로 부여하여 개발자들에게 표준화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표준화사업의 상호연계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APT, ITU 등 각 국가대표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에는 정부대표의 참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 본부인력으로는 지속적인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할관서, 산하기관 등에 업무를 분담시키고 전문성·지속성을 담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내업체들이 ASTAP 등 여러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에 적극참여하여 첨단기술을 조

기 습득하고 자사제품을 국제표준기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ASTAP, ITU-T, ISO, IETF 활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국제 표준화 전문인력의 양성 추진도 시급하다. 또한 인터넷 보안기술포럼 등 국내의 민간포럼의 국제 표준화활동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MOU 체결 등 국제협력 지원 등도 필자의 입장에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 판단된다.

4. 맺음말

지난 4월에 이어 겨우 2번의 회의참석을 통해 본인이 ASTAP 전반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다소 부적합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앞에서 제기된 이슈들이 향후 ASTAP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명실상부한 전문 표준화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내년 5월에 정보통신부에서는 ITU와 공동으로 ITU SPU, ITU-T Security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다. 이번 행사시 ASTAP의 관련 전문가와 협조하여 동 행사에서 우리나라가 ITU의 Security 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